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동디자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동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듣고) 많지 않으시네요. 행동디자인은 환경이나 조건을 디자인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자, 먼저 화면을 보시죠. 이 비누 속에는 장난감이 들어 있습니다. 무척 신기하지요? 이 비누를 본 아이들은 호기심을 느껴 비누로 자주 손을 씻게 되었고, 덕분에 질병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동디자인의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행동디자인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 일까요? 그것은 트리거 때문입니다. 트리거란 일반적으로 유인, 계기를 뜻하는데요. 행동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장난감이 들어 있는 비누처럼 감각을 통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물리적 트리거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 즉 물리적 트리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을 심리적 트리거라고 합니다. 행동디자인은 물리적 트리거와 심리적 트리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 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물리적 트리거라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 후에 심리적 트리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의 행동을 거부감 없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을 보여준 후)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노란 발자국이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 그림에 맞추어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간단한 물리적 트리거로도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 때에는 공통점이 있는 두 물건을 결합하거나, 직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기존의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물리적 트리거에 익숙해져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물리적 트리거에 경쟁이나 게임 같은 요소를 더하여 행동디자인의 효과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발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행동디자인이 적용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디자인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1.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③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청중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⑤ 질문의 방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2.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의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디자인에서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 ② 행동디자인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③ 행동디자인에서는 무엇을 디자인하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나요?
- ④ 물리적 트리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나요?
- ⑤ 물리적 트리거가 심리적 트리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예로는 무엇이 있나요?

3.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수는 학생들이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넣도록 그림과 같은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처음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에는 설치 의도대로 교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실 바닥에 다시 쓰레기가 버려졌고 영수는 고민에 빠졌다.



- ① 영수는 물건을 넣는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농구 골대와 쓰레기통을 결합시킨 것이겠군.
- ② 영수는 물리적 트리거를 만들기 위해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한 것이겠군.
- ③ 교실 바닥에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영수의 심리적 트리거가 물리적 트리거를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시간이 지나자 교실 바닥에 다시 쓰레기가 버려진 것은 학생들이 물리적 트리거에 익숙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영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쓰레기통을 하나 더 설치하여 게임을 통해 경쟁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군.

[4 ~ 7] (가)는 독서 동아리에서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슬기’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토의 상황

독서 동아리에서는 ‘고전과 삶’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함께 읽을 고전으로 『어린 왕자』를 선정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

지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어린 왕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 우선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슬기가 먼저 이야기해 보자.

슬기: 『어린 왕자』 하면 여우가 나오는 장면을 가장 많이 애기하잖아. 나도 그렇긴 했는데, 어린 왕자가 여섯 개의 별에서 만난 사람들도 기억에 남았어.

준호: 어? 나도 그런데. 난 그중에서도 가로등 켜는 사람이 [A] 제일 인상적이었어.

슬기: 나랑 비슷하네. 난 가로등 켜는 사람이라 사업가가 기억에 남아.

지혜: 그럼 둘 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다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

슬기: 가로등 켜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성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준호: 나도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명령 때문에 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난 [B]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어.

슬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지혜: 인상 깊었던 이유는 서로 조금 다르네. 슬기는 가로등 켜는 사람의 성실한 면에, 준호는 수동적인 면에 더 주목했구나. 그러면 가로등 켜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어떤 면을 돌아보게 하는지 말해 볼까?

슬기: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준호: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중요성도 생각해 보게 됐어.

슬기: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나)

삶이라는 길은 걷게 되는 것일까, 걸어가는 것일까?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동안 나는 학생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독서 토의 후 이런 나의 삶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어릴 때 『어린 왕자』는 동화책 같은 느낌이었고 여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처음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 때문이었지만, 토의를 하고 나서 그의 수동적인 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스스로 찾지 않았던 것이다. 그 모습에서 나는 문득 내 얼굴을 발견했다.

나는 올해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주어진 역할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스스로 학급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평소 나는 여러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왔다. 하지만 고민을 터놓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결국 이것도 능동적이지 못했던 나의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나의 마음과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친구를 위해 나의 마음과 노력을 다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4. (가)에 나타난 ‘지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할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토의 진행을 위해 발언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의 입장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⑤ 토의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

5.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준호’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A]: ‘슬기’는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환기하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B]: ‘슬기’는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준호’는 상대방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C]: ‘슬기’는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6. 다음은 (가)의 활동을 수행한 후, (나)를 작성하기 위한 ‘슬기’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문 계획

* 1문단

- 독서 토의가 최근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언급해야겠어. ①

* 2문단

-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와 다시 읽었을 때의 차이점을 드러내야겠어. ②

* 3문단

-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언급해야겠어. ③

* 4문단

- 나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한 내용을 답아야겠어. ④
- 책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깨달은 바를 드러내야겠어. ⑤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공공미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학생의 초고]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에 미술 작품들이 ㉠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설치한 미술 작품들을 ‘공공미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공미술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되는 작품들이 많다. ㉡ 그래서 공공미술 작품이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작품의 유지와 보수,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각종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작품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설치할 것인가를 설치 주체들의 판단에만 맡기다 보니, 작품의 예술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한 채 ㉣ 설치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특정 분야의 작품들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미술의 유지와 보수, 처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관리할 주체를 ㉤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작품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작품을 설치할 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취지에 걸맞은 예술성을 확보하고,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치된 작품에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작품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7. <조건>에 따라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

- (나)에 제시된 핵심적인 성찰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어린 왕자』, 친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다
- ② 『어린 왕자』를 읽고 성찰한 나의 삶, 주체적인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다
- ③ 선물처럼 다가온 『어린 왕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순수한 시절과 마주하다
- ④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배의 키를 켜 선장같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다
- ⑤ 『어린 왕자』를 통해서 알게 된 함께 사는 세상,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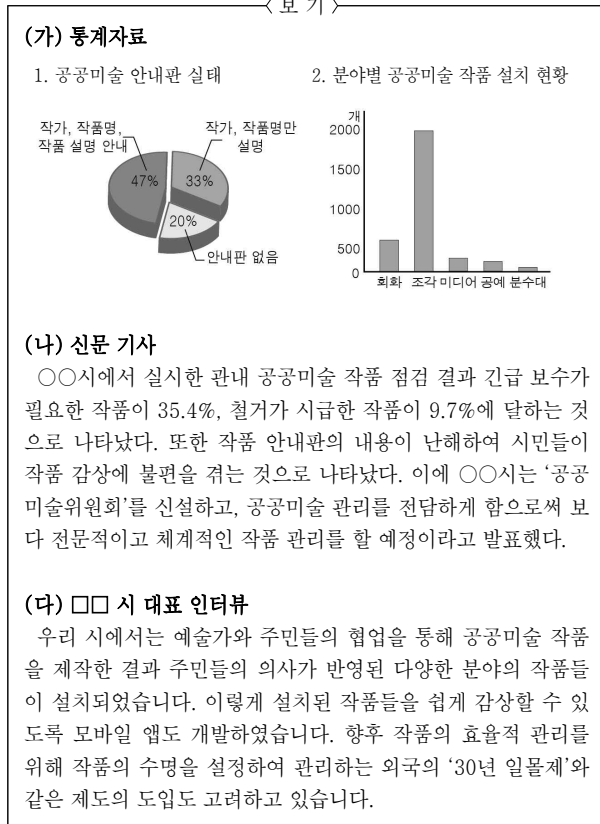
8. <보기>에서 ‘학생의 초고’에 드러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ㄴ.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ㄷ.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글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 ㄹ.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2를 활용하여 공공미술 작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된 작품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제시한다.
- ③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공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원인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작품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해 관리 주체를 통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사후 관리가 부실한 공공미술 작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설치되어'로 고쳐야겠어.
- ② ㉡: 문장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리고'로 고쳐야겠어.
- ③ ㉢: 맞춤법에 어긋나는 단어이므로 '더우기'로 고쳐야겠어.
- ④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설치가 쉽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으로 고쳐야겠어.
- ⑤ ㉤: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하나로'를 삭제해야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를 말하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합성 명사, 합성 부사, 합성 동사 등과 같이 합성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꽃'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곤잘'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힘쓰다'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둘째,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와 같이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앞뒤, 오르내리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속 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는 합성어이다. '돌다리, 산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융합 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분께 춘추(春秋)를 여쭙어 보았다.'에서 '춘추(春秋)'는 '봄'과 '가을'이라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셋째,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산나물',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실룩실룩',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그만두다', 연결어미에 의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뛰어가다'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을 따른 합성어를 말한다. 반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접찰', 연결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한 '끓주리다',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척척박사'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를 말한다.

11.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농부들이 ㉠ 피땀으로 일군 ㉡ 논밭에 가을이 왔다.
• 이 ㉢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오면, 포도가 ㉣ 송이송이 영어갈 것이다.

- ① ㉠은 두 어근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 ② ㉡은 합성 명사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 ③ ㉠과 ㉡은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 ④ ㉠과 ㉡은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합성어이지만, 두 합성의 품사는 동일하다.
- ⑤ ㉠과 ㉡은 모두 결합한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이지만, 두 합성어의 품사는 다르다.

12. 다음은 [A]와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 방식	구분	다른 예
또다시 → 또+다시	㉠	통사적 합성어	㉡
첫사랑 → 첫+사랑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	왼쪽
붙잡다 → 붙-+잡다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	㉣	㉤

- ① ㉠에는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 들어가겠군.
 ② ㉡에는 ‘하루빨리’를 넣을 수 있겠군.
 ③ ㉢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겠군.
 ④ ㉣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겠군.
 ⑤ ㉤에는 ‘군세다’를 넣을 수 있겠군.

13. <보기>의 ㉠~㉣에서 설명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긴다.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 두 개의 음운 중 한 음운이 없어진다.
㉣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다.

- ① ㉠: 설날[설:랄], 한여름[한너름]
 ② ㉡: 놓아[노아], 없을[업:을]
 ③ ㉢: 앉히다[안치다], 끓이다[끄리다]
 ④ ㉠ + ㉡: 구급약[구:급낙], 물엿[물련]
 ⑤ ㉡ + ㉢: 읊조리다[읍조리다], 꽃꽂하다[꼇꾸타다]

14.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문	사동문
㉠	철수가 집에 가다.	내가 철수를 집에 가게 하다.
㉡	동생이 밥을 먹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다.

- ① ㉠의 주동문은 ㉡과 달리 사동 접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②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③ ㉠과 ㉡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뀐 경우이다.
 ④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⑤ ㉠, ㉡과 달리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이다.

15. <보기 1>은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고, <보기 2>는 현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보기 2>를 참고하여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보살(菩薩)이 ㉠ 어느 나라해 느리시게 흐려뇨 [현대 국어] 보살이 어느 나라에 내리시도록 하려는가? [중세 국어] ㉡ 어느 구더 병불쇄(兵不碎)흐리잇고 [현대 국어] 어느 것이 굳어 군대가 부수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세 국어] 저른 아히 ㉢ 어느 듣즈보리잇고 [현대 국어] 어린 아이가 어찌 들겠습니까? [중세 국어] 미혹(迷惑) ㉣ 어느 풀리 [현대 국어] 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겠는가? [중세 국어] 이 두 말을 ㉤ 어느 종(從)히시려뇨 [현대 국어]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보기 2
어느 01 「관형사」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 어느 02 「대명사」 『옛말』 어느 것. 어느 03 「부사」 『옛말』 ‘어찌’의 옛말.

- ①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은 <보기 2>의 ‘어느 01’과 품사가 같다고 할 수 있겠군.
 ② ㉡은 <보기 2>의 ‘어느 02’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은 <보기 2>의 ‘어느 03’으로 쓰여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할 수 있겠군.
 ④ <보기 2>의 ‘어느 01’과 ‘어느 03’을 참고해 보니 ㉣과 ‘어느 01’은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에 사용된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인 <보기 2>의 ‘어느 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의해 인간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인간의 역사는 이성을 통해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구해왔다고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인류가 전체주의의 폭력과 같은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신화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계몽을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인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즉 신화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으며, 계몽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그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라고 선언한다. 그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는 상태였으며, 인간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은 미지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인간이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 냈으며, 신화에는 신화적 힘, 예언 등과 같은 운명적 필연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나타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신화에 나타난 이러한 노력을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도르노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 ‘계몽은 다시 신화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아도르노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고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달한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작동 방식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정치, 심리·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폭력과 고통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시 말해, 마치 신화적 힘이나 예언 등이 인간에게 숙명적인 필연성으로 강요되었던 것처럼, 이성의 힘이 당위적인 질서를 만들어 인간을 억압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아도르노는 계몽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이성에 그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비이성적인 면모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아도르노는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 비이성적인 면을 드러낸 이유가, 인간의 이성에 내재된 동일성 사고에 있음을 밝힌다. 동일성 사고는 주체가 자신의 개념적 틀에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을 파악했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사과가 있을 때 색깔과 크기, 모양 등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성 사고에 의해 이것들을 모두 ‘사과’라는 하나의 개념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동일성 사고에 의해,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모든 대상은 교유의 질적 측면을 잃어버린 채, 계산 가능한 형태로만 측정되어 숫자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쉽게 교환 가능해 진다고 보았다. 가령 두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 시간을 들여 만든 각각의 상품이 교환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두 물건이 노동의 질은 무시된 채 노동 시간의 양으로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동일성 사고가 내재된 이성이, 자연은 물론 인간과 인간의 본성까지 계량화하여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 동일성 사고에 지배받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그는 동일성 사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의 사유가 필

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동일성 사고를 긍정하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의 사유 방식을 제안한다. 아도르노는 헤겔의 동일성 철학의 핵심 개념인 ‘보편자’와 ‘특수자’를 각각 ‘동일성’과 ‘비동일성’으로 보았다. 즉 동일성 사고에 의해 대상을 끌어들이는 주체를 ‘동일성’으로, 끌어들이는 대상을 ‘비동일성’으로 본 것이다. 헤겔의 동일성 철학에서 특수자는 보편자의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헤겔은 보편자가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자를 동일화시켜 파악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헤겔의 동일성 철학으로 인해 특수자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파괴된다고 보았다. 아도르노는 특수자, 즉 비동일성을 진정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비동일성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동일성 사고에 의해 비동일성이 어떤 한쪽으로 동일화되지 않도록, 비동일성에 대해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강조하는 비동일성 철학이다. 그는 이러한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를 예술이 담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진정한 예술의 모습은, 동일성 사고로 인해 고정된 질서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친숙함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술을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성 사고가 지닌 억압을 자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도르노에게 진정한 예술은 동일성 사고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는 예술이다.

1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 이론을 비판하며 계몽주의가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인용문을 활용하여 계몽주의가 분화된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 ③ 시대적 흐름을 제시하여 비동일성 철학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개념을 통해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통해 비동일성 철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간의 이성이 신화에도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자연의 공포로부터 탈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은 미지의 대상인 자연이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④ ㉡은 과학적 지식과 수학이 당위적 질서가 되어 인간을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은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폭력과 고통의 관계를 만드는 데에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18.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하게 한다.
- ②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를 부정한다.
- ③ 인간의 본성과 자연까지 계량화하게 만든다.
- ④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교환 가능하게 만든다.
- ⑤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이성에 내재되어 있다.

19.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절대적 가치로 지향하는 A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의 평가 척도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K 씨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즐거움 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P 씨는 평소 가족의 건강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했지만 이 척도를 접한 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① 만약 해젤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K 씨는 특수자로 볼 수 있겠군.
- ② 만약 해젤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보편자로 본다면, A 국가가 만든 5단계의 평가 척도는 P 씨에게 개념적 틀로 작용했겠군.
- ③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A 국가를 동일성으로 본다면, P 씨는 자신의 고유성이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K 씨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K 씨는 자신의 기준으로 A 국가를 끌어들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만약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P 씨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P 씨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성 사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겠군.

20. 윗글을 읽은 학생이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보기>의 ‘12음 기법 음악’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쾨베르크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다른 음이 종속되도록 작곡하는 조성 중심의 작곡법에서 탈피하고자 12음 기법 음악을 탄생시켰다. 그는 12개의 서로 다른 음이 모두 한 번씩 사용될 때까지 같은 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곡함으로써 그 어떤 음도 조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 당시 조성 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처음 듣게 되면 어떤 음이 이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 했다.

- ① 조성 중심 작곡법을 사용해 억압을 자각하게 하므로 진정한 예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어떤 음도 조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 것은 비동일성 철학의 논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어떤 음이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 사고로 인한 친숙함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감상자들로 하여금 조성 중심 작곡법에 익숙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12개의 음이 모두 한 번씩 사용될 때까지 같은 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고정된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송노인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더욱 심한 손해를 보았다. <원지본위>란 환지*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노인의 경우는 도합 천오백열 평 중 원지로 받은 것은 불과 사백 평 뿐이고 나머지 천백열 평은 말도 안 되는 박토——산을 깎은 개간지를 환지로서 받았던 것이다.

㉑ “죽일 놈들!”

송노인의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다. 환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불평을 했다. 마을 환지위원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진흥공사의 ××사업소 사람들도 그러고 그랬으리란 소문도 나돌았다. 이런 소문들이 맹탕 거짓말이 아니라란 것은, 가령 마을 환지위원들 가운데는 그런 억울한 변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과 또 환지위원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덕을 본 셈이라는 얘기들을 미루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부당한 환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기분들이었지만 그런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 보자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았다. 가뜰이나 <오리엔탈 골프장>의 경우와는 달라서 이긴 바로 정부에서 한 일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들이었다. 말하자면 다루기 쉬운 백성들로 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했다, 망했어!”

송노인의 불평은 한 계단 더 비약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었다. 늙은 몸으로 두 달을 계속 관계요로에 <부당 환지의 시정>을 호소하고 다녔다. 새어 나온 그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마을 환지위원장인 이성복 동장에게는 무려 15회, 농업진흥공사 ××사업소에는 6회나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다. 시종일관 목살을 당하고만 셈이니까.

게다가 고속도로가 통하면 사람 왕래도 많아져서 송노인의 집에서는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란 메기입 이성복 동장의 말도 턱도 아닌 헛나팔이 되고 말았다.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들은 아무데나 설 수도 없고 또 고속도로는 함부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을 시골 사람들은 길이 통한 뒤에야 비로소 알았다. 바로 길 너머 눈에 두엄을 내는 사람들도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야만 되었다.

“제-기, 이기 무슨 지랄고!”

집이 무거울수록 그들의 입에서는 욕이 절로 나왔다.

길에서 집이 가까운 송노인의 경우는 은근히 희망을 걸어보던 가게를 내건커녕 지나가는 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과 먼지 때문에 도리어 역정만 늘어날 판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여 구멍가게라도 뵈까 싶어 일부러 길 쪽으로 내 보았던 마루방도 이내 문을 닫아걸었다. 길 쪽 창유리가 쉴 새 없이 밀려닥치는 먼지로 인해 마치 매가릿간의 그것처럼 뿌연게 되어 버렸다.

㉒ “망했다. 망했어!”

[중략 부분의 줄거리] 마을의 농토는 공장부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넘어간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농담이나 하는 마을 젊은이들과 송노인은 갈들하게 된다.

“비꼬지 마쇼.”

이번에는 메기입의 친구요 역시 마을 환지위원의 한 사람인 상출이란 청년이 불쑥 나섰다.

“영감님이 젊었을 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했다고 토크하면 젊었을 때는——하고 나서는기요? 농민조합에 들어가서 경찰서 대리부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밖에 더 있소?”

청년회장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머리가 영리하고 옛

날 일도 제법 알고 있는 편이다. 안다는 놈이 그러니 송영감은 더욱 부아가 치밀었다.

“그래 농민조합에 가담한 기 그렇게 나쁜 일인가?”

“농민조합은 빨갱이 단체 아니오?”

상출이는 숫제 위협 비슷하게 나왔다. 송노인은 드디어 부아통이 터지고 말았다.

“머 빨갱이 단체? 이놈들이 묻하는 말이 없구나. 그래 왜놈의 경찰이 우리 경찰이디냐? 일제 때 고자질이나 하고 헌병 앞 짹이나 돼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쏘아 죽이고 하던 놈들이 요새 와서는 자긴 반공 투쟁을 했을 뿐이라고 도리어 큰소리 치고 돌아다닌다 카디이, ㉠ 바로 느그가 생사 람 잡을 소릴 하는구나. 어데 그 소리 한 번 더 해 봐라!”

송노인은 뻔만 남은 팔을 걷어 올렸다. 금방 칼이나 창 구실을 할지도 모를 그런 팔이었다.

“영감님 참으이소. 장난으로 한 소리 아잉기요.”

송노인의 성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메기입이 얼른 사이에 들었다.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

㉡ “아나, 이놈아 어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나 해라! 송기호는 늙은 빨갱이라고——.”

송노인은 상출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 주려다 그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송노인의 그러한 감정은 비단 상출이에게만이 아니라 아무런 주견도 패기도 없으면서 그래도 마을의 무슨 대표인 체하고 우쭐거리는 젊은 치 전체에 대한 것인 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세대교체의 탓인지도 모르되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어른들은 다 뒤로 물러났고 그런 젊은 치들이 마을 일을 도맡듯 해서 웬든 그르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용춤을 추고 있는 판국이라고 송노인은 생각했다. 환지문제 기타로 인해 송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노인네들은 그저 “세상이 그런 걸 머!” 할 뿐 드러내 놓고 말을 잘 안했다.—— 요컨대 아직은 드러내 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명청한 얼굴들에 나타나게 마련인 씩씩한 웃음들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만한 일이었다.

㉢ “철딱서니 없는 놈들…….”

— 김정환, 「어떤 유서」 —

* 환지: 토지를 서로 바꿈, 또는 바꾼 땅, 환토(換土)

2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의 이야기에 내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반복하여 교차하고 있다.
- ④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송노인은 자신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일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
- ② ㉡: 송노인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 ③ ㉢: 송노인은 과거에 그가 한 일을 왜곡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노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송노인은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 ⑤ ㉢: 송노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1970년대 국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중간자가 개입되어 있다. 또한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농민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무기력한 태도로 방관하거나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분열되는 등 파편화된 모습을 보인다.

- ① ‘정부에서 한 일’로 인해 ‘부당한 환지를 받은’ 것은 권력자들에 의해 토지를 침탈당한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송노인에게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점에서 이성복 동장은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중간자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면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농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세상이 그런 걸 머!’라고 체념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모습을 통해 파편화되어 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 마리

[A]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변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해염치는
초록의 강 물결
어우러져 날으는 애기 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B]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쏘내기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님……

[C] 바닷물이 적은 여울을 마시듯이
당신은 다시 그를 데려가고
그 휘—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 기인 뱀을 두셨습니다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번 내 위에 밝는 날
이제
산골에 피어나는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같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춘향의 말 2」 -

(나)

그리운 이 그리워 마음 둘 곳 없는 ㉠ 봄날엔
홀로 어디론가 떠나 버리자.
사람들은
행선지가 확실한 티켓을 들고
부지런히 역구를 빠져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별과 만남의 격정으로 눈물짓는데
방금 도착한 저 열차는
먼 남쪽 푸른 바닷가에서 온 완행.
실어 온 동백꽃잎들을
촉촉처럼 역두에 뿌리고 떠난다.
나도 과거로 가는 차표를 끊고 저 열차를 타면
어제의 어제를 달려서
잃어버린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운 이 그리워
문득 타 보는 완행열차,
그 차창에 어리는 봄날의
우수.

- 오세영, 「그리운 이 그리워」 -

(다)

예전 영남을 유람할 때 동래의 해운대(海雲臺)와 물운대(沒雲臺)를 올라간 적이 있다. 물운대는 땅이 바다 한가운데로 움푹 들어가서 대가 된 곳이다. 길이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겨우 몇 길도 떨어져 있지 않다. 파도 소리가 해안을 치니 그 때문에 말이 피하여 뒷걸음친다. 뱃백 걸음 가면 땅이 비로소 끝이 나고 하늘과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 조금 있으니 바다로 들어가고 남은 햇살이 사방에서 부서진 금처럼 쏘아댄다. ㉡ 만경창과 넓은 바다에 사나운 바람이 일어 요란한 소리를 낸다. 큰 파도가 허공에 뒤집어져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천둥이 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결이 동탕쳤다. 내 마음이 상쾌해져서 근심이 싹 사라졌다. ㉢ 돌아와 대포진(大浦鎭)의 객사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조금 있으니 달이 떠올랐다. 바다의 빛은 거울처럼 맑았다. 나지막이 대마도가 바라다 보이는데 마치 잘 차려놓은 잔칫상 같았다. 다 장관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곤 한다. 눈은 내 방 안에 있지만 오래도록 사방의 벽을 보고 있노라면 벽에서 파도 문양이 생겨나 마치 바다를 그려놓은 휘장을 붙여놓은 듯하다. 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정신이 상쾌해져서 내 자신이 좁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이 때문에 일어나 책을 마주하면 유창하고 쾌활하게 읽힌다. 마치 내 가슴을 바닷물로 적시는 듯하다. 그러니 예전 물운대가 어찌 바로 내 집이 되지 않겠는가? ㉣ 이제 내가 사는 달팽이집이 바로 바다가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 집을 바닷물로 적신다는 함해라 이름한 것은 엉터리가 아니다.

또 생각해보았다. ㉤ 저 동래의 바다는 내 시야에서는 거리가

매우 멀기는 하지만 천 리를 넘지 않는다. 금산(錦山)의 미라도(彌羅島)가 그 서쪽을 막고 있고 대마도가 그 동쪽을 가리고 있다. 남쪽 바다에는 섬들이 안개와 구름에 싸여 아스라이 보인다. 이는 바다 중에서 작은 것이다. 내 집의 책을 통해서는 동서남북, 하늘과 땅, ㉥ 과거와 현재에까지 미루어 나갈 수 있고, 천지와 사방 안팎의 공간이나 아주 먼 고대의 시간까지 에워싸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연(鄒衍)이 세상 밖에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구주(九州)조차 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책이라는 것의 크기를 어찌 더할 수 있겠는가? ㉦ 저 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날아오르는 큰 봉새나 몸집이 자그마한 메주라기나 소요(逍遙)를 즐기는 것은 한 가지다.

비록 그러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덕을 확립하는 일이고, 다음은 저술을 이루는 일이다. 내가 물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내 국량을 키워 나가 끝없는 바다에 이를 수 있다면, 또 어떠한 것이 이에 비견할 것이겠는가?

- 이종휘, 「함해당기」 -

24. (가)의 [A] ~ [D]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같이 평화롭던 화자의 내면은 [B]에서 '미친 회오리바람'처럼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군.
- ② [B]의 '그의 모습으로' 다가온 '당신'이 [C]에서 '바닷물이 적은 여울을 마시듯이' '그를 데려' 갔다고 한 것은 화자의 만남과 이별이 숙명과 같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C]의 '휘-ㄴ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다는 것은 이별로 인한 화자의 내면 상태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④ [D]의 '또 한번 내 위에 밝는 날'은 기다림의 끝에 희망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D]의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같은' [A]의 '애기 구름'같이 연약했던, 화자의 사랑이 화려한 결실을 맺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는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홀연히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기차역의 풍경을 보며 화자가 느낀 그리움의 정서는 계절적 배경과 어우러져 더욱 심화된다. 자연물을 통해 계절의 순환을 환기한 화자는 과거로의 회귀를 소망하지만 결국 그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된다.

- ①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또' '들어오'는 '역구'는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기차역의 이중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기차역에서 '격정으로 눈물짓는' 사람들과 '촉촉처럼 역두에 뿌려지는' '동백꽃잎'이 어우러져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 ③ '푸른 바닷가에서 온 완행'을 타기 위해 '차표를 끊고' 싶어 하는 것은 계절의 순환을 깨닫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문득' '완행열차'를 타는 화자의 모습에는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⑤ '차창에 어리는 봄날의' '우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두 자연과 교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② ㉠~㉣은 모두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기원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③ ㉠, ㉡은 대상이 결핍된 시간을, ㉢은 인식이 확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 ④ ㉠, ㉢은 공동체적 체험의 시간을, ㉡은 개인적 체험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⑤ ㉡, ㉢은 타인과 단절된 시간을, ㉠은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27.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주변 상황으로 인한 내면의 동요를 인지하고 있다.
- ② ㉡: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③ ㉢: 사고를 전환하여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 ④ ㉣: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편협함을 느끼고 있다.
- ⑤ ㉤: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깨닫고 있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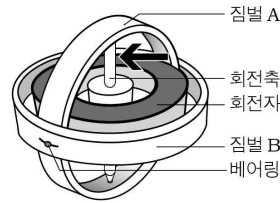
자동 조종 장치는 조종사가 비행 전에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경로 및 고도를 유지해 주는 장치이다. 자동 조종 장치에서 관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감지 센서는, 다양한 비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의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의 핵심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인데,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을 계산하여 운항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로 운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행기의 운항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선 운동과, 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전 운동인 각운동을 이해해야 한다. 가속도 센서는 비행기의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속도, 이동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장치이다.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므로 위치나 이동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속도 센서 역시 세 개가 필요하다. 즉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평축, 비행기의 한 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기준으로 한 수평축, 비행기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직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각각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할 때 어떠한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하여 이동 거리와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본적으로 중력 값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과 거리, 속도만 측정할 수 있고, 비행기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각의 변화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운항 중인 비

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고,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로 기우는 것은 비행기의 한 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다. 그리고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를 하는 경우는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를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무엇일까? 기본적인 자이로스코프의 구조는 <그림>과 같다. 자이로스코프는 팽이



<그림>

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 1개와, 짐벌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짐벌 A는 회전축의 양 끝을 잡아주며, 짐벌 B와 90도로 연결되어 있다. 짐벌 A와 짐벌 B는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짐벌 A와 짐벌 B가 이루는 작은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

한편 자이로스코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동된다. 먼저,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회전자의 회전축과 연결된 짐벌 A 역시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이로스코프의 축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진 축이 아닌,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어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들고 있던 팽이가 쓰러지려고 할 경우 팽이체로 팽이의 측면에 힘을 가하면 그 측면과 90도를 이루는 팽이의 회전축으로 힘이 전달되어 회전축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되면서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자이로스코프의 경우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질 경우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짐벌 B로 그 힘이 전달되어 짐벌 B가 움직이게 된다. 이때 짐벌 A는 회전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짐벌 B는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지게 되므로 짐벌 A를 기준으로 짐벌 B가 이루는 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각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각속도를 측정하여 비행

[A] 기의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앞으로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하강기류를 만나 비행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서 속도 변화와 각의 변화를 동반한 운동을 한다면, 가속도 센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와 이동 거리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한 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축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처럼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측정된 값들을 통해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원래의 궤도로 ㉠ 돌아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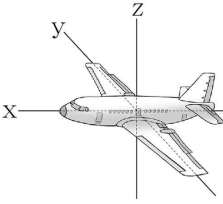
*선회: 항공기가 곡선을 그리듯 진로를 바꿈

28.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성 요소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구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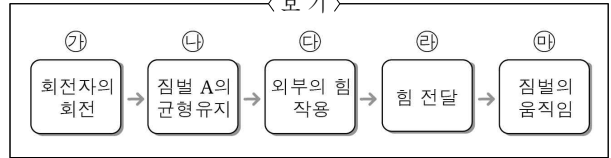
< 보 기 >



현재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으며, 이때 관성 항법 장치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 ① 비행기의 앞머리가 들리는 경우,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②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경우, x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③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경우, z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가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 ④ 비행기가 x축 방향으로 수평을 유지한 채 수직으로 하강하는 경우, z축을 기준으로 한 직선 운동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가 이동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겠군.
- ⑤ 비행기가 왼쪽으로 선회하면서 속도와 각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가속도 센서는 속도 변화를, y축을 기준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는 각의 변화를 감지하겠군.

30. <보기>는 윗글의 [A]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에서 회전축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군.
- ② 짐벌 A의 양끝이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③ ㉠에서 일어나는 회전축의 회전은 ㉢의 작용이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겠군.
- ④ ㉢로 인해 발생한 ㉣는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짐벌 B에 영향을 미치겠군.
- ⑤ ㉣에서의 외부 힘으로 인해 ㉤에서는 짐벌 A와 짐벌 B가 이루는 각이 변화하게 되겠군.

31.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 보 기 >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직선으로 달릴 때 정확한 움직임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의 측정값뿐 아니라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때 바퀴의 중심은 (㉡)이/가 된다. 이후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바퀴의 (㉢) 때문에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 | ㉠ | ㉡ | ㉢ |
|---|------|-----|-------|
| ① | 중력 값 | 회전축 | 회전 관성 |
| ② | 중력 값 | 회전자 | 회전 관성 |
| ③ | 중력 값 | 회전자 | 직선 운동 |
| ④ | 각속도 | 회전축 | 회전 관성 |
| ⑤ | 각속도 | 회전축 | 직선 운동 |

32.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추석이 돌아왔다.
- ②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 ③ 이제 나의 발표할 차례가 돌아왔다.
- ④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법이다.
- ⑤ 우리는 돌아오는 휴일에 등산을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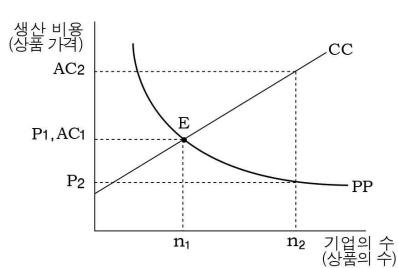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우위론에서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한다.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간접 생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한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의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이론에서는 만약 두 국가에 각각 독점적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 독점적 경쟁시장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들은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평균생산비용이란 총생산비용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림>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림>

다. 또한 CC는 시장 내 기업의 평균생산비용곡선,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곡선을 나타낸다.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E에서 균형점이 형성되며 이때 균형 기업의 수는 n_1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X축은 기업의 수 혹은 상품의 수,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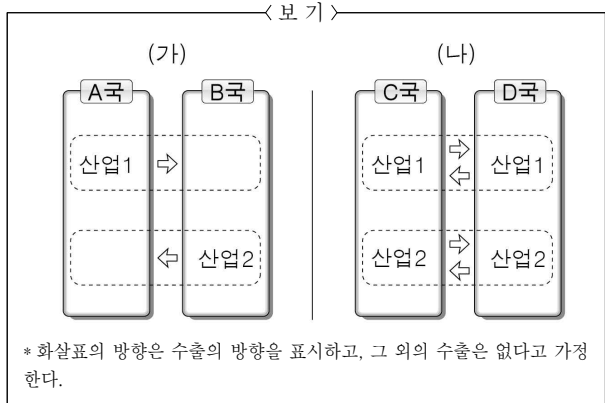
약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가 n_1 에서 n_2 로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업들의 평균생산비용은 AC_1 에서 AC_2 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독점력은 약화되어, 상품 가격은 P_1 에서 P_2 로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무역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지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 시장의 크기가 확대되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생산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33. 밑줄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생산량과 평균생산비용의 관계
- ②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의 예
- ③ 산업 내 무역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 ④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 ⑤ 고전적 무역 이론인 비교우위론이 가지는 한계

34.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와 (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수출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무역을 통해 간접 생산하겠군.
-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35. 윗글의 ㉠과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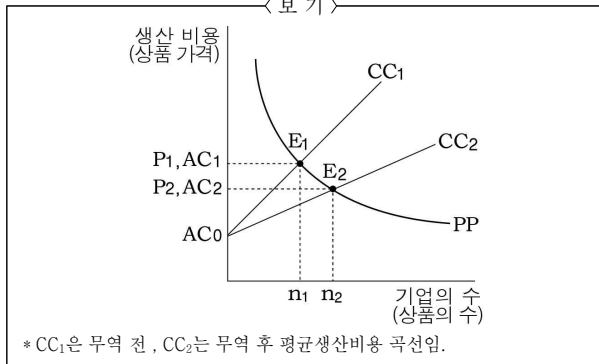
[A] 완전 경쟁시장은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B] 독점 시장은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 ① ㉠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하지만, 판매되는 상품들 간의 차별화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이 각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에서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지만,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상품들이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B]에서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_1 에서 n_2 로 바뀌게 되었다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CC₁과 CC₂가 모두 AC₀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균형점이 E₁에서 E₂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상품의 가격이 P₁에서 무역 후 P₂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무역 후 균형점이 E₂인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_2 보다 늘어났다면, 평균생산비용이 AC₂보다 높아져 기업 중 일부는 퇴출될 가능성이 있겠군.

37. ㉠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② 국가가 보유한 자원이 단기간에 감소하였다.
- ③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갑자기 상승하였다.
- ④ 평균생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다.
- ⑤ 단기간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테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탄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혀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든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노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피암 즉흔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A]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탁야 어즈러이 구뎃편디
 받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피ᄃᆞ티 빠혀시니
 하눌히라 원망호며 사롭이라 허물호랴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중략>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호야 불갓노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역진(力盡)호야 쫓음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ᄃᆞ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므옴의 머근 말슴 슬ᄃᆞ장 솟자 호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호며
 정(情)을 못다호야 목이조차 메여히니

오던된 ㉠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끼뚫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켜이로다.
출하리 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님 거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돌이야궤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

(나)

봄은 오고 쏘 오고 풀은 풀고 쏘 풀으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프르기 ㄴ티
어느날 고향(故鄕)의 도라가 노모(老母)의 뵈오려노. <1수>

친년(親年)*은 칠십오(七十五)ㅣ오 영로(嶺路)*는 수천리
(數千里)오

도라갈 기약(期約)은 가디록 아득하다.
아마도 줌 업슨 중야(中夜)의 눈물 계워 설웨라. <2수>

㉡ 기럭의 아니 느니 편지(片紙)를 누 전(傳)히리
시름이 ㄴ득히니 꿈인들 이물손가
매일(每日)의 노친(老親) 얼굴이 눈의 삼삼(森森)히야라.
<6수>

동산(東山)을 올라 보니 고국(故國)도 멀서이고
태행(太行)이 어드메오 구름이 머호레라
갈수록 애일촌심(愛日寸心)*이 여림심연(如臨深淵)* 히여라.
<7수>

내 죄(罪)를 아음거니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지처(至處) 성은(聖恩)을 어이 히야 갑스울고
노친(老親)도 플터 헤시고 하 그리 마오쇼셔. <10수>

하늘이 눅흐시나 느즌 덕를 드르시닉
일월(日月)이 갓가오샤 하토(下土)의 비취시닉
아므라타 우리 모자지정(母子至情)을 슬피실 제 업스오랴.
<11수>
— 이담명, 「사노친곡」 —

*친년: 어머님 연세.

*영로: 고갯길.

*애일촌심: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림심연: 깊은 못 가에 있는 듯 조심스러움.

*유찬이 박벌: 죄가 너무 커서 귀양 보내는 일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임.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의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친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정쟁(政爭)으로 인한 낙향이나 유배는 많은 문학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품에 드러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는 충과 효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작가의 처지에서 기인한다. 그리움은 이별의 슬픔, 임금에 대한 연모와 감사, 가족에 대한 염려 등으로 표출되며 이 과정에서 우의적 형상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원망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울분, 자신을 잊은 임금에 대한 서운함,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한 자책 등으로 드러난다.

- ① (가)는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님’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함으로써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군.
- ② (나)는 ‘노모’와의 거리감을 ‘영로는 수천리’로 나타내어 작가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가족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내 몸의 지은 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모습을, (나)는 ‘유찬이 박벌’이라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설워 플터 헤’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나)는 ‘구름’이 험한 모습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죽어서 ‘낙월’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 임금에 대한 연모를, (나)는 ‘성은’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군.

40.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수>의 ‘봄은 오고 쏘 오’는 것에서 <2수>의 ‘도라갈 기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드러나는군.
- ② <2수>의 ‘중야’에 ‘줌’을 이루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을 통해 화자의 시름이 드러나는군.
- ③ <2수>의 ‘친년은 칠십오’라는 것을 떠올리는 모습과 <7수>의 ‘갈수록 애일촌심’을 느끼는 모습에서 화자의 근심이 드러나는군.
- ④ <6수>의 ‘매일’ ‘노친 얼굴’을 떠올리는 모습과 <7수>의 ‘동산을 올라’ ‘고국’을 바라보는 행위에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는군.
- ⑤ <11수>의 ‘모자지정을 슬피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41. ㉠와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이다.
- ②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소재이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 ⑤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선은 바로 길을 떠나 먼저 해주로 들어가면서 여러 읍의 일을 차례차례 남모르게 염탐하였다. 한 주점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서로 걱정하면서 말하였다.

“해주는 운남도 도적 때문에 봉물이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구나. 그 놈들을 어찌 하여야 잡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참혹한 일도 있도다. 모년 모일에 강릉의 이 감사가 벼슬살이를 옮겨 갈 적에 그 놈들에게 재물을 탈취 당하고 나는 간신히 살아왔노라. 그러니 그 놈들을 잡으면 만백성에게 적선하는 일일 것이다. 이번에 급제한 사람이 운남도 도적의 아들이라 하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도적놈의 자식**이 급제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어사가 들으니 자신에 대한 말인지라, 이에 생각하기를, ‘운남도 도적이란 말은 내가 아직 듣지 못한 바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도다. 또 강릉 이 감사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 하였는데, 저 아전의 말을 들으니 분명한 사실이기도다. 이제야 생각해보니 옥통소는 진정 이 감사의 통소요, 그때 탈취한 것이로구나.’하고, 그들에게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그때 이 감사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 아전이 말하였다.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모시고 있던 하인들 가운데서도 살아온 사람이 몇 아니 됩니다.”

어사가 듣기를 마치고 마음속에 감추어두고는 운남도 도적을 탐문하여 알아내고자 배를 타고 몰래 들어갔다.

마침 어떤 집 마당에 큰 햇불을 놓고 여럿이 모여 앉아 분주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사가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자세히 들으니 도적들이 훔친 물건을 자랑하면서 점고(點考)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자네 아들이 이번에 급제하였다는 소문은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어찌 도문(到門)*하지 아니하는고?”

그 도적이 대답하였다.

“이제 자네는 모르겠는가? 세상에 남의 자식이란 것은 다 거짓 것이라네. 어떤 일 때문에 백학산 동구를 지나갈 때 서역국 집 앞에 어떤 아이가 놀고 있었다네. 염탐하여 알아보니 역국의 **수양자**라 하더군. 살펴보니 거동이 비범하기에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길렀으니 저인들 어찌 아버가 다른 줄 알리오? 그러나 무슨 마음으로 아직까지 오지 아니하는고? 아마도 남의 자식은 거짓 것인 듯하니 오지 않은들 어찌 하겠는가?”

또 한 도적이 여천추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그러하거나와 만일 오지 아니하면 자네 딸은 어이할꼬?”

이에 여천추가 말하였다.

“자네는 그런 말 하지 마소. 과거에 급제하여 유가(游街)하다 보면 자연히 더딘 것이라. 부모와 아내를 두고 어찌 오지 않겠는가. 만일 오지 않더라도 우리 무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딸은 다른 가문에 다시 시집가면 그만이로다. 그러나 가장 분한 것은 황해도 감사의 짐을 빼앗았을 때에 얻은 강릉 추월이라는 **옥통소**로다. 그것이 기이한 보배이기로 깊숙이 감추어두었다가 사위라 여겨 주었더니 이제 잃고 말았도다.”

어사가 그 말을 다 듣고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간과 심장이 떨리면서 견디지 못할 듯하였으나 모든 일을 어찌 급하게 처리할 수 있으리오. 먼저 백학산을 찾아 가서 **서역국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보리라** 하고 즉시 그곳에서 나와 주점으로 돌아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어사는 백학산으로 가서 양아버지였던 서역국을 만난다. 그의 도움으로 자신의 친어머니와 만나 가족이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적들을 소탕하기로 한다.

마침내 어사는 해주 군진에서 쓰는 무기와 기치를 앞세우고 인근 읍의 군졸과 합세하여 사천 명을 거느리고 선문 없이 길을 떠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운남도로 들어갔다. 운남도에 들어가 첩첩이 포위하여 도적을 소탕하고는 우선 장수백과 여천추를 잡아내어 끌어앉히고 다른 도적도 차례차례 끌어앉힌 뒤에 큰 햇불을 사방에 밝히고 형산맹호(荊山猛虎)처럼 앉아 장수백을 형문하였다.

“천하대적 장수백아, 너의 죄를 네가 아느냐? 또 나를 아느냐? 보아라.”

수백이 머리를 들어서 보니 과연 저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들 해선아! 네 부모인 줄 몰라보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이 저의 부모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사가 군사를 호령하여,

“주장으로 입을 찍으라.” 하니,

“이놈 장수백아, 너는 도적질하며 훔치지 못할 것이 없이 파렴치한 짓을 하였으니, 백학산 동구에 가서 무엇을 도적하였느냐? 네 죄가 많으니 자세히 아뢰어라.”

수백이 그제서야 말하였다.

“일이 이미 발각되었으니 어찌 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서역국도 남의 자식을 수양자로 삼았고 나도 자식이 없어 남의 자식을 수양자로 삼았으니 저와 내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또한 상벌과 공훈으로 말해보더라도 서역국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남의 자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성명을 고친 것만 허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이다지 팔시할 수 있습니까?”

어사가 또 호령하여,

“바빠 거행하라.”

하니, 그 소리에 역졸과 무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형추 사오십 대를 때리고 다시 끌어앉혔다.

이어서 여천추를 잡아들여 주리를 틀며 물었다.

“강릉추월 옥통소를 어디에 가서 도적하였느냐? 배에 실렸던 재물을 탈취하면 되었지 무슨 원수를 맺었다고 사람까지 죽였느냐? 천지가 무심치 아니하여 강릉추월 옥통소 소리로 나도 **전말을 알게** 되었고 **모친도** 찾았으니, 너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아까울 것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천추가 놀랍고 또 겁이 나서 빌면서 말하였다.

“장인과 사위된 사정만 생각하라. 너는 나의 사위이니 나는 너의 처부모인데 어찌 인정 없이 이다지 악행을 가하느냐? 사정으로 말할진대 처부모도 부모이니 부모이기는 마찬가지요, 또 이 감사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주리를 트느냐? 또 옥통소를 어찌 네가 임자라 하느냐? 본임자는 이 감사요 둘째 임자는 나니라. 또 이 감사 죽이기로 네게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니, 어사가 호령하여 말하였다.

“내가 관계가 없으면 이렇듯 하겠느냐? **이 감사는 바로 나의 부친이니**, 너는 나의 불공대천지원수니라.”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찢어 죽이라 하니 여천추가 그제야 이 감사 아들인 줄 알고 놀라 허둥거리며 실색하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잠자코 죽기만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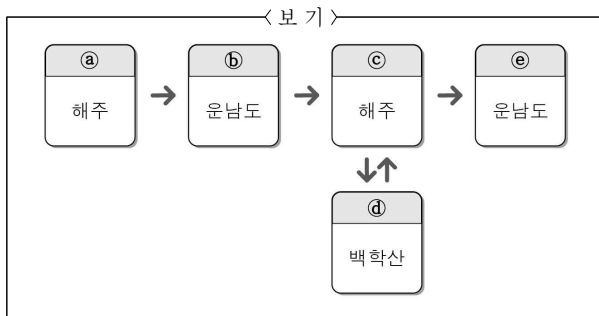
- 작자 미상, 「강릉추월전」 -

* 도문: 과거에 급제하여 홍패(紅牌)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던 일.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초월적 인물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는 주인공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사는 ㉠에서 다른 인물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 ② 어사는 ㉠에서 들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로 들어가게 된다.
- ③ 어사가 ㉡에서 느낀 감정은 ㉢에서 행동으로 표출된다.
- ④ 어사가 ㉢에서 ㉣로 간 것은 다른 인물과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 ⑤ 어사가 ㉣로 가게 된 것은 ㉡에서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릉추월전」은 가족과의 ‘이별과 만남’이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주인공은 혈육과의 이별로 인해 기구한 운명에 처하지만, 재회의 과정을 통해 열등한 상황에서 벗어나 원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주인공의 ‘친부모 찾기’는 개인 존재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상실했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소재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신표(信標)로 사용된다.

- ① 어사가 여친주에게 ‘옥통소’를 받은 것에서 옥통소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신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어사가 ‘이 감사는 바로 나의 부친이’라고 여친주에게 밝히는 모습에서 상실했던 자아 정체성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어사가 ‘서역국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보리라’고 다짐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어사가 친부모를 잃고 두 번에 걸쳐 ‘수양자’가 되는 것은 혈육과의 이별로 인해 기구한 운명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어사가 ‘전말을 알게’ 되고 ‘모친’을 찾은 것은 ‘도적놈의 자식’이라는 열등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겠군.

45.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다.
- ② 함구무언(緘口無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있다.
- ③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④ 일벌백계(一罰百戒)하기 위해 상대방의 실수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아전인수(我田引水)의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